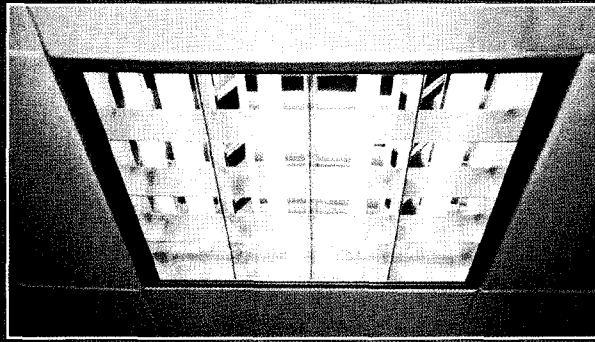


강원지역 대표 ESCO 에너지토탈서비스 기업으로 확장

■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엘레코전자는 지난 2000년 설립 이후 조도개선 사업을 주력업종으로 시작하여, 최근에는 GHP와 폐열회수기로의 아이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강원지역에서의 성공적인 ESCO 사업을 발판으로 향후 조명 설비 제조에서부터 진단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에너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에너지 종합 시스템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이다.

■ 성민오 기자(minos@energycenter.co.kr)



부천 심곡초등학교 조명등 교체공사는 에너지절감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안전을 고려한 디자인과 시각적 효과까지 고려했다. 투자비는 총 8천만원으로 월 5십만원씩 연간 6백만원을 상환한다.



수도권 일대는 아파트 단지외 오피스 빌딩을 비롯한 대형 공공건물이 밀집하고 있어 그만큼 사업의 시행횟수가 잦아지면서 ESCO들의 참여기회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ESCO가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엘레코전자는 강원도 지역에서 시행되는 대부분의 ESCO 사업을 책임지고 있어 영업전략이나 실적면에서 수도권 업체와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강원도 지역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조명분야 ESCO 사업 활발히 진행

엘레코전자는 2000년 9월 경기도에서 출발하여 지난해 8월에 원주로 이전 후, 학교 및 지방청사 조도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우선 지난 해 여름에 시행했던 강릉농공고 조도개선 ESCO 사업은 8천만원의 투자비로 낡고 노후한 전등을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하여 월 1백5십만원씩 5년간 상환받는 것으로, 해당 학교는 공사 후 강원도 교육청으로부터 에너지관리모범학교로 표창을 받는 등 그 효과가 입증된 사례이다.

원주지방환경청 역시 반사갓과 고효율조명기기를 이용한 조도개선 사업으로 금액은 크지 않지만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엘레코전자는 에너지절감량과 조도개선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냄으로써 ESCO 사업에 회의적이었던 지방청사로부터 사업수행역량에 대해 인정받게 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여기고 있다.

“국가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청사이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사업 시행전 검토과정이 매우 치밀하고 세심했습니다. 전등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 과연 이만큼의 절감량이 나올 것인가, 이만큼 밝아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을 하나하나 설득하는 과정이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관리부 나상훈 과장은 이렇듯 쉽지 않은 과정 끝에 일궈낸 성과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



반사갓과 고효율조명기기를 이용한 조도개선 사업을 시행했던 원주지방환경청 ESCO 사업은 타 지역 정부지방청사에서 벤치마킹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장근무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직원수가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의 소규모 업체지만 춘천, 원주, 강릉을 중심으로 강원도에서 이루어지는 ESCO 사업의 90% 이상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조명 설비 제조에서부터 진단,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에너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에너지 종합 시스템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여 국내 최고, 나아가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약하고 싶다는 것이 이들의 포부이다. (왼쪽부터 권리부 나상훈 과장, 영업부 서일범 과장, 재무부 박기선 과장)

한편, 조명분야에 있어서는 강원도 지역 외에도 경기도와 충청북도 등 넓은 지역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시킨 바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전기료를 무려 70% 다운시킨 분당 푸른마을 아파트와 의정부 민락주공2단지 아파트의 조명개체 공사이다.

“175W 메탈등을 17W 전구용 형광등으로 교체한 분당과 의정부의 아파트 공사는 금액이 각각 2천5백만원과 천6백만원으로 그리 크지 않은 규모지만 타동에서 문의전화와 빗발치고 입주자 대표측에서 전기과장을 승진시키는 등 사업 후 정말 큰 보람을 느꼈던 경우입니다.”

이외에도 부천 심곡초등학교나 충북 청원군의 현도정보고등학교 등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고효율조명기기 개체 사례는 수없이 많다.

GHP, 폐열회수기로 주력 아이템 전환 진단, 시공, 제조 아우르는 종합서비스기업 될 것

현장근무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직원수가 한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의 소규모 업체지만 춘천, 원

주, 강릉을 중심으로 강원도에서 이루어지는 ESCO 사업의 90% 이상을 수행하고 있는 엘레코전자는 전기공사업에서 최근 가스냉난방으로 주력업종을 변경하는 과도기에 있다.

조명부분은 ESCO 자금지원이 ‘교체’ 시에만 인정되는 반면에, GHP는 신축건물 설치에도 지원되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면 아이템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지난 봄부터 냉난방 분야의 영업을 시작하여 아직 실적은 달성하지 못했으나 곧 큰 규모의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원주, 강릉, 횡성 등 도내 12군데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그것으로, 엘레코전자가 참여한 원주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자 선정에 위한 심사가 현재 진행중이다.

원주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천장, 바닥공사 등 일반적인 개보수와 더불어 냉난방 설비까지 교체하는 3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조만간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어 금년 안으로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자 선정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 엘레코전자에서 제시한 가스냉난방의 효율성이 실무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어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

3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원주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GHP 도입과 더불어 중구난방식으로 널려있는 조명기구들(上)을 아래와 같이 에너지사용면에서 효율적이고 조도 또한 높은 고효율조명기구로 교체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바닥, 천장 등의 건물 개보수 공事も 동시에 진행된다.



으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GHP로 주력업종을 전환하려는 엘레코전자에 하나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업부 서일범 과장은 이번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외에도 객실수가 70여개에 달하는 호텔 GHP 설치공사와 SK텔레콤 강원지사 조명공사 등 대규모 사업을 올해 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GHP 분야는 11월부터 LNG가 도입되는 강원도에 매우 적절한 시스템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엘레코전자에서는 국내 ESCO 시장은 이미 조명분야가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 GHP와 더불어 중앙난방에 적용되는 폐열회수기 쪽으로 아이템 전환을 시작하고 있다.

“GHP가 획기적인 에너지절약시스템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 투자비 부담이 큰 것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경제적이지만 당장의 막대한 투자비 부담으로 확산속도가 더뎠던 만큼 국내 업체간 경쟁을 통해 GHP 기술개발이 속히 이루어져 상용화될 수 있는 가격이 갖추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폐열회수기는 원주·춘천지역의 20여개 아파트가 현재 중앙난방식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아파트를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아울러 엘레코전자는 내년 하반기쯤 반사갓을 비롯한 조명설비 제조업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제조업을 겸할시 제품 조달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원도 중소기업지원센터로부터 수의계약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GHP, 폐열회수기를 주력 업종으로 전환시키면서 동시에 조명분야 ESCO 사업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욕심이다.

강원지역의 ESCO 사업을 도맡고 있는 엘레코전자는 향후 조명설비 제조에서부터 진단,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에너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에너지 종합 시스템을 갖춘 기업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최고, 나아가 세계적인 무대에서도 활약하고 싶다는 것이 이들의 포부이다.

엘레코전자를 키워가는 소수정예 직원들의 활약상을 지켜보는 일. 이것은 맨손으로 시작하여 거대기업으로 성장했던 수많은 한국 기업들의 신화를 다시 보게 되는 일인지도 모른다. ☞